



군산동고
제2021-26호

가 정 통 신 문

(우) 54067 군산시 달여길 50, (개정동)
http://kunsan-donggo.hs.kr/ ☎ 450-1104

세계로 응비하는
군산동고등학교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의 이해

1.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침뱉기, 눈 흘기기,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학교폭력일까요? 네,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휴대폰 문자, SNS를 통한 조롱,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피해학생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폭력'입니다.

2.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교사와의 상담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늪을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진급하면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일진회' 등 청소년 폭력씨클에 의한 집단폭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학교 일진회와 피해학생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학교폭력의 발생을 교사, 부모, 학교, 경찰 등에 즉각적으로 알릴 때 비로소 가해학생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신고는 과거의 폭력, 현재의 폭력, 미래의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부모가 알 수 있는 학교폭력의 징후

| 피해학생의 징후 | 가해학생의 징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이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명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친구가 시키는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이유없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갑자기 돈 씹씀이가 커졌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부모에게 이유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봉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

4. 자녀의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주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고 정당화하지 마세요. ▶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

5.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정책

| |
|--|
| <p>1.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 학기당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 1:1 면담 실시, 학부모에게 면담결과 통지, 학교폭력에 따른 상담 치료사항을 학생별로 누적관리하며 생활지도,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p> <p>2.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처 예방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 '117' 24시간 운영, 연1회 국가수준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4~고3학생 대상 실시,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보복폭력에 대한 징계 강화(보복할 경우 출석정지기간 제한없음),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우선 부담 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행사</p> <p>3. 건전한 또래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학생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체계적으로 교육, 모든 학생에게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게임, 인터넷중독을 포함한 학교폭력 징후 조기 발견 후 생활지도, 사이버 상담 활성화(굿바이학교폭력스마트폰 앱, 네이버상담 등)</p> <p>4. 학부모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자녀이해를 돕기위한 '학부모교육' 대폭 확대, 학교설명회, 핵심정책 학부모교육을 연2회 일과후 개최, 학기당 1회이상 학부모와 교사간 상담 실시,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의무화(특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p> <p>5. 아이들의 건강한 인성을 키웁니다. 학년초, 규율 준수를 위해 학생·학부모는 학교생활규정에 동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성영역 기재를 강화, 입학사정관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평가요소로 활용</p> <p>6.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해 사회가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은 정시퇴근하여 '밥상머리교육' 실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캠프, 가족캠프, 가족봉사 프로그램 확대</p> <p>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을 차단합니다.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셋다운제(12시 이후 접속차단)'강화, 비교육적 게임물에 대한 심의 강화, 학교는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지도 강화</p> |
|--|

2021. 5. 28.
군산동고등학교장

